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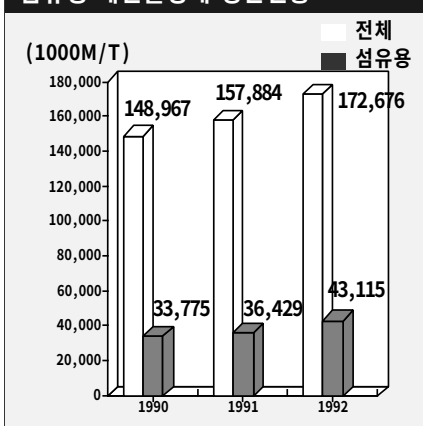
섬유용 계면활성제 쟁탈전

수요신장률 30% 상회 ... 신제품 개발 · 국산화 박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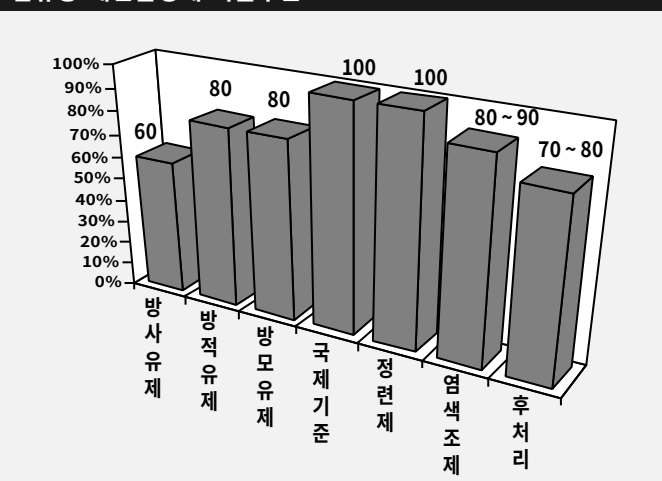
섬유산업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, 섬유용 계면활성제 시장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관련업체에 따르면 섬유용 계면활성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, 한국계면활성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의 92년 실적을 보면 국내 판매가 수량 4만1751톤, 금액 499억 8100만원으로 91년 3만1296톤, 373억2400만원 대비, 수량은 33.4%, 금액은 33.9%의 증가율을 보였다. 수출은 수량 1835톤, 금액 18억8600만원으로 91년 5133톤, 57억6500만원 대비 수량 64.3%, 금액 67.3%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. 올해는 국내 면방 · 사염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값싼 중국 원단 수입 증가로 수요가 둔화돼 국내 섬유용 계면활성제 기업들 및 외국기업간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고 있다.

섬유용 계면활성제 생산현황



섬유용 계면활성제 기술수준



합성섬유용 불소발수제는 국내 수요량이 월 250~300톤으로 미국 · 일본 · 스위스 등지에서 전량 수입해 왔으나, 한국정밀화학이 한국화학연구소와 공동으로 10억원을 투자, 국산화에 성공했다.

한국정밀화학은 월 50톤 정도를 생산,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. 한국정밀화학의 KFGUARD는 5000원선인 반면, 3M의 SCARCHGUARD는 2만원선이어서 가격에 장점을 갖고, 수입 대체에 나서고 있다.

대동상사는 온도감온염료용 · 방염가공용 · 방향의류가공용 아크릴중합체를 개발, 연간 20억원 정도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최근 국내 섬유 · 염색 기업들이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제품고급화에 주력, 고가 계면활성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계면활성제 생산기업들도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·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. 그러나 향후 국내 계면활성제 시장이 그다지 밝지 못하고, 고가 계면활성제 수요는 여전히 수입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, 좀 더 과감한 정부의 지원대책과 생산기업들의 국산화 노력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